

EU, 식품공급체인 자문기관 창설

EU는 식품공급체인과 동식물안전을 위한 자문기관(Advisory Group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and Plant Health)을 창설한다. 이 기관은 EU의 식품안전정책 하에서 소비자, 식품산업, 소매업자, 농민 등이 EU 위원회(EC)와 EU조직(European organisations)과의 컨설팅과 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또한, 이 자문기관(Advisory Group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and Plant Health)은 유럽 수준의 연합체로서 최대 4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연간 최소 2번의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fork)”라는 기조 아래, 식품안전정책의 일환인 새로운 자문기관은 식품정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식품관련 정책에 관심을 표명하는 다양한 EU 기구들을 위해 인터넷에 식품안전성을 주제로 한 자문포럼을 만들 계획이다. 새로운 자문기관은 올 연말에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David Byrne EU 보건 및 소비자보호 분과위원(European Commissioner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투자자와의 논쟁과 대화는 우리 정책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EU는 식품안전규정과 관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를 앞으로 식품 안전 자문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현대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품생산자, 식품 중개자, 소매업자, 소비자를 대표하는 유럽 수준의 연

합회는 식품공급체인과 동식물 안전을 위한 자문기관에 멤버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자문기관은 기존의 5개의 자문기관, 즉 식료품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Foodstuffs)와 과거 농산물 보건 및 안전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Agricultural Product Health and Safety) 산하의 수의학·식물보건·가축후생·식료분과의 대표기관 등을 대체한다. 자문기관을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EU의 입법절차를 돕는 위원회인 식품공급체인과 가축보건 대표기관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자문기관은 식품안전 정책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날 현실에서 실행가능한 개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을 맡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위원회, 입법절차를 담당하는 초기 혹은 상위 단계의 자문단, 현재의 식품법을 보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단,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높은 기술적 기여를 하는 자문단으로 실행단체(working group)를 소집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라벨링, 생물공학과 관련된 실행단체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행단체에의 참가 자격은 자문기관 회원국 모두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관심있는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참관단체와 같은 다른 단체들도 참여 가능할 것이다.

출처: 저스트푸드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